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입국초기 난민의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연수 등을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난민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이 시행 중에 있어 **난민(전쟁·경제 난민 제외)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난민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지식인층이 많고 본국 상황이 바뀌면 자국으로 돌아가 사회 지도층이 될 사람들도 있어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지원 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난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 등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영종도 입지 선정 이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난민들이 센터에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초기 지원시설은 공항시설 내 또는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

센터는 한국사회에 낯선 입국초기 난민 신청자 중에서 입주 희망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센터는 입주자에 대한 생계 및 초기적응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한국 사회의 이해·법질서 교육,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연수 및 국제회의, 워크숍 장소로 활용됩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

센터에는 합법체류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센터 입주 대상은 출입국장에서 난민신청을 한 자, 합법체류자 중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자, 장애인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법무부 훈령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불법체류자는 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02.

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82명입니다.

센터에는 2인실 33개, 4인실(가족실) 4개가 있어 적정 입주인원은 82명입니다. 영종도에 센터를 추가 건립하거나 센터 내 유휴지에 건물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으므로 난민을 수백명씩 수용한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03.

불법체류자가 없는 안전한 영종도를 만들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취업을 위하여 주로 3D 업종의 중소기업이 많은 안산 등의 공단지역으로 몰려듭니다.

현재 영종도 지역에는 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어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지만, 주민의 치안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04.

센터 입주자들은 다른 어떤 외국인보다 법을 준수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난민은 자국에서 생명 위협 또는 박해를 피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범죄나 폭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05.

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국가 시설입니다.

센터를 “외국인 심사대기 공간”, “출입국직원 연수 시설” 등으로 승인을 받고서, “난민지원시설”로 사용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법무부는 '10. 2. 8. “주민설명회” 및 '11. 3. 7. 서울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을 때 센터의 주요기능은 난민신청자의 주거 지원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센터는 난민지원과 출입국직원 연수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06.

센터는 영종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영종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동출입국” “어린이 영어캠프” 및 “어린이로스쿨”을 운영하고, 사랑방, 운동시설 등을 주민여러분께 개방할 계획입니다.